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종교

장학생 모집 남가주사랑의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산하 사랑장학회가 제17기 사랑장학생을 모집한다.

응모 자격은 미국 내 정규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진학예정자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및 타 커뮤니티 학생 ▶해외 선교사의 자녀 ▶미국 내 미자립 교회 목회자 자녀 ▶해외 선교지의 선교사가 추천하는 현직인 신학생이다.

모집 인원은 100명 이상으로 예정돼 있으며, 선발 장학생에게는 20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10월 1일(일)~10월 31일(화)이며 선발 결과는 오는 11월 30일(목)에 발표한다.

선발 결과와 장학금 지급 안내는 장학회 홈페이지(www.kdfsarang.com)에 공고하고 개별 통보한다. 접수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714) 772-7777 kdfs@gmail.com

찬양선교 음악회 미주 찬양선교회

미주찬양선교회(회장 이재근 목사)가 찬송가 보급, 찬양시역자와 찬양팀을 돕기 위해 주최하는 '제9회 찬양선교음악회'가 오는 10월 8일(일) 오후 6시 30분 세리토스에 있는 생수의강선교교회(담임목사 최형규, 19200 Pioneer Blvd., Cerritos, CA 90703)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남가주 장로성가단, LA남성선교합창단, 오렌지 미션콤파이어, 남가주 장로중창단, LA 목사중창단, 소노리스 싱어즈, 바리톤 장상근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찬양을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는 무료로 진행된다.

▶ 문의: (562) 714-0691

※ 바로잡습니다

지난 주 종교면 '영원 속에서 사는 시간'이란 제목의 글쓴이인 윤병준 목사는 '플러튼아가페교회 담임'이 아닌 '남가주뉴비전교회 담임'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십자가와 사랑의 길(마태오 16, 21-27 (가))

십자가의 길이라 하면 어딘가 무겁고 중압감을 느끼게 하는 반면에 사랑의 길이라 하면 달콤하고 부드러운 감을 갖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함께 붙어 다니는 것이고 불가분의 성질을 지니고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의 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수난에 관하여 말씀하시며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당신의 제자가 되는 유일무이한 길이란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하시려고 오신 것도 사랑에서이며 인류 구원이란 대사업도 십자가상의 사랑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부이신 하느님의 사랑의 절정이며 성부의 사랑이 최고로 나타난 모습입니다. 천주 성부의 준엄하신 정의와 공의하심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게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천주 성부의 태도와 예수님의 태도는 조금도 대립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성부이신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의 발로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 천주 성부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 붙이시으로써 정말로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합니다(요한 3:16). 성부께서 예수님을 지상에 파견하실 적에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세상을 구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바라시고 또 명하신 것은 오직 사랑의 길을 최후까지 거닐어라. 또한 사랑의 힘으



로 최악의 권세에 승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최악이 팽창한 사회에서 타협할 줄 모르는 예수님의 사랑이 죄로 마비된 당신의 인간들과 충들을 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최악으로 눈이 어두워진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 예수님의 활동은 자기들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요 위험한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필사코 예수님을 살해하여 세상에서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사랑하는 사람, 일체의 이기주의를 떠나 자신을 방어할 권력을 포기한 사람은 온전히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여 천사들의 정예부대에 원조를 청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몸을 숨기려고도, 당신의 교훈을 철회하시려고도, 당신의 태도를 고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연유로 예수님의 사형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가벼운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의 잘

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 한 마디로 인류를 구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최고로 드러낼 수 있는 곳은 십자가상이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당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성부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달리시으로써 인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 자신만이 십자가를 통하여, 즉 수고 수난과 죽음이란 형극의 길을 걸었고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직제자들 즉 사도들도 이런 십자가의 길을 걸게 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각별히 어려움과 고통과 단련을 받게 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가 되는 길을 명시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마태 16:24)고 하신 말씀이 오늘처럼 실감 있게 들려오는 때가 없었습니다. 십자가가 그렇게도 우리에게 좋은 존재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입에는 쓴 약이 병에는 좋다는 격이겠지요.

십자가처럼 우리를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길이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즉 고통의 길은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느님께 봉사하고 인간을 구원하는데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김정진 신부-

한남체인 내 코웨이 & 실드라이프

Covid-19 소독제품
여러종류 마스크 판매

정수기 / 비데 / 공기청정기 / 연수기
실드라이프 전기매트, 전기장판

정수기 판매 및 렌탈

714.523.9588 / 714.471.1843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한남체인 내